

#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 합의안 나올까

### 오늘 경사노위 회의... 기간 확대 · 건강권 확보 사이 점점 못찾아 공전 상태

노동계와 재계가 광범하게 맞서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놓고 노사가 2월 임시국회에 맞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한다.

7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외 잠정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합의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는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선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5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의 사례만 검토했을 뿐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을 못했다.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물밑 협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회의에서 협상에 진도가 나간 것은 없다"며 "8일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은 임금 보전과 근로자 건강권 확보 방안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임금보전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게 기업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뤄지면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합리적 의견이라야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이나 1년으로 늘어난다면 미리 수개월 후의 스케줄을 짜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에 대해서도 노사 간 이견이 적지 않다. 경영계는 오늘과 11일 두차례 회의를 통해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나 한국노총은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논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마냥 진척도 없이 붙잡고 있으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며 "정부도 원래 지난해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었고 다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오는 11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임금보전 방안과 건강권 보장 방안을 마

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견을 좁혀가고 있지만 합의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 정부 측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국회에 넘기더라도 여야 간의 정쟁으로 2월 입법이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임명 강행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보이콧 하고 있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초 정부가 공언한 2월 입법이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스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오늘부터 14일까지 '비즈니스 균일가전'을 진행한다.

## 화려함과 기능성을 한번에!

### 롯데백화점 전주점, 오늘부터 비즈니스 균일가전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오늘부터 14일까지 7일간, 6층 Event Hall에서 '1년에 단 한번! 비즈니스 균일가전'을 진행한다. 이번 '비즈니스 균일가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비즈니스란제리 행사는 화려함과 기능성을 겸비한 행사로 1년에 단 한번 진행되는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대형 이벤트이다.

또한, 올해 '발렌타인데이, 졸업, 입학시즌' 등을 앞두고 롯데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에 걸맞는 큰 행사로 규모와 물량도 대폭 확대하여 고객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역민들에게 큰 기쁨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여성 팬티, 브래지어, 남성팬티, 울인원(여성속옷), 잠옷 등을 40~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비즈니스란제리 브래지어 15,000/20,000원, 여성팬티 6,000/9,000원, 거들 15,000원, 울인원 33,000원, 남성팬티 11,0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고품질 품목들로 비즈니스 균일가전 판매를 한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라제리 김현숙파트리더는 "1년에 단 한번! 비즈니스 균일가전 행사에는 1년에 단 한번뿐인 행사로 과격적이고 획기적인 가격으로 고객들과의 불거리, 소통, 재미 등으로 이뤄지는 행사로 진행된다"며,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찾는 많은 고객들에게 큰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어 행사물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롯데백화점 전주점 장성근 홍보실장(063-289-3739)에게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김영태 기자

## 구제역 확산 철통방역태세 유지

### 전북농협, 계통기관 · 축산사업장 일제 소독 · 방역시설 운영 강화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설 연휴 직후인 7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맞춰 더욱 더 철저하게 일제소독의 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 계통 조직에 세부 실행계획을 시달렸으며 축산농장, 전통시장, 밀집사육지역, 축산관련 작업장, 철새도래지 등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46개반, 광역살포기 4대, 방역지원인력 100여명, 생석회·소독약품 비축기지 3개소 등 총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동시에

했다고 밝혔다.

유재도 본부장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농업기술센터)를 방문, 구제역 방역상황실 관계자를 위로 했고 서수 양돈단지 등 밀집사육지역의 방역현장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후 7일간 발생이 없었지만 14일간의 잠복기와 일제점종(2.3) 완료를 고려할 때 향후 일주간 차단방역이 구제역 발생근절의 최대 고비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연휴직

전 2.1~2일 양일간 정부에서 긴급방역대책으로 시행한 2단계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에 축산건설턴트, 소속수우사 200여명을 동원, 700여농가 4만5천두의 점종을 지원, 연휴기간에는 공동방제단 46개반과 광역살포기 등 방역차량 62대, 연인원 310여명의 방역인력을 투입하여 6,000농가에 직접 소독지원을 했다.

또한, 전국 지역본부장과 시군지부장은 연휴기간중 비상근무를 하고 유재도 본부장을 비롯, 전 시군지부는 일선방역현장을 방문하고 점검, 현장 직원을 격려하는 활동을 연휴기간내 쉬지 않고 감행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19년 구제역이 3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최대한 막아야 하며 범농협의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대

응해 나갈 것이다"며, "농식품부와 공조하여 철통방역태세를 유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전북농협은 지역본부, 시군지부를 포함한 관련 사업장의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 가동중이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생석회 5,580포를 긴급 공급하고 축협 수우사 및 컨설턴트가 참여하여 취약농가 백신공급 및 긴급접종지원,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투입해 방역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소독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2월 21일까지 도내 9개 가축시장 임시 폐쇄 조치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며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도 일시 중단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원에농협, 지도사업 종합평가 품목농협부문 1위 수상

전주원에농협(조합장 김우철)이 7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대회에서 '2018년 지도사업 종합평가' 연도말 평가에서 품목농협부문 1위를 수상했다. 농협중앙회 주최 지도사업 종합평가는 일선 지역농협들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지도사업 모델 정립, 확산과 지역별 우수 추진사례 공유를 통한 지도사업 활성화 유도에 목적이 있다.

전주원에농협은 지난해 12월 3일

'2018년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해 '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도 1위를 수상함에 따라 지도사업부문에서 전국적으로도 뛰어난 농협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전주원에농협은 농촌인력증강센터를 운영, 영농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조합원들에게 중개하고 있고 농약, 비료 등 30여개 품목의 할인, 과일 포장봉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농민보안원센터, 신규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남원권역보증센터(지점장 원홍연)는 경영능력 및 사업성이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민수산업자에게 원활한 농민보 지원을 위해 올해 1,862억원을 신규로 보증·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남원권역보증센터는 2018년도에 1,754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108억원이 증가한 1,862억원의 신규보증을 센터관할 74

개의 농·축·수협, 산림조합 본·지점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보증 한도는 개인 15억원, 법인은 20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수산업 관련 개인, 중소기업에 신규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지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를 물론 농가소득 향상, 청년 창업 농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농업·농촌 만들기

### 전북농협, 신사업 발굴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기를 마련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1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B-Project(신사업, Brand-new project) 컨테스트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컨테스트는 농촌지원단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농업·농촌 만들기' 등 전북농협의 미래사업·수익창출·이미지 제고, 조직문화 개선 등 단계별로 1가지 이상의 사업을 발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전북농협은 "지속되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북농협의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제2·제3의 미래사업 창출을 위한 기회의 장

을 마련, 신사업 발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축협과의 시너지 향상,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전북농협 구현을 위해 컨테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도말에 추진배경, 난이도, 기대효과, 발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의 투표를 거쳐 시상할 계획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기존 사업외에 신사업 발굴·추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전북농협 건설을 도모하여 조기에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